통권18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4. 23
발행인/권오헌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 763-2606, 745-5604

마지막 자유

— 문익환

사랑하고 애끼는
살붙이 피붙이 마음붙이들과
같이 딩굴며 울고 웃는 자유를
나는 고스란히 내놓았오.
물론 내놓지 않을 수도 있었죠.
더 큰 자유만 포기했더라면
그것은 나의 마지막 자유
죽는 자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
한 줌 재도 안 남기고 타버리는
불꽃의자유
그 자유마저 내놓으라고?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한껏 불어라.
나는 신바람나게 춤을 추리라.
꺼질듯 일어서며 쓰러질듯 솟구치며
두둥 두둥 둥 두둥
신들린 무당처럼 미친듯
춤을 추리라.

문익환
양심수 후원회 지도위원.
방북하신 일로 옥고를 치루다가 3.6 조치때 안동교도소에서 나오심

■ 감옥에서 온 편지

— 계절의 변화 모르는 감옥의 겨울

양심수 후원회 여러분께

교도소를 감싸안은 듯한 산 중턱에 어느덧 노란 개나리가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산 뿐이라서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기도 합니다만 나이드신 장기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겨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학생, 노동자 동료들은 길어도 몇해면 교도소 문을 나설수 있지만 전국의 장기수 선생님들은 기약없는 징역인 탓에 지켜보기가 죄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긴 겨울의 추위속에서도 생명의 힘을 저장하고 발육시킨 개나리가 봄이 되어 활짝 피듯 양심수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활짝 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저희들을 위해 노심초사 신경을 쓴으시는 마음 배려에 깊은 고마움을 가지고 삽니다.

보내주신 영치금,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라는 격려로 알고 소중히 쓰겠습니다.

이번에 기만적인 석방으로 감옥을 나오지 못한 가족분들께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옥에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새날이 올 때까지 힘차게 살겠습니다.

민가협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동에서
93. 4. 6
박 선태 드립니다.

— 따뜻한 햇살을 서럽게 맞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아니 하루종일 방 안에서는 아직도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할 만큼 겨울의 티끌이 남아 있지만, 햇살을 받고 있자면, 등짝에 후끈한 땀이 흐르는 요즘입니다. 칙칙한 산 기슭에는 수줍어 하는 소년처럼 진달래가 듬성듬성 피었고요, 새벽으론 맑은 새소리도 들리는 봄날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서럽게 맞이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 징역사는 사람들, 현실이려니 하면서 수걱수걱 살아갈 뿐입니다.

막연히 '민가협'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봄날 햇살보다 더 따뜻함을 전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6사면때 여기에 있는 저희들 마음도 착찹했지만, 또한 밖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착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셨겠지요. 안에 있는 저희 들이야 세속을 떠난 듯 살면서 간혹 바깥에 대한 갈망에 잠시 몸부림칠 뿐, 밖에 계신 분들의 고생에 비하겠습니까. 옥바라지 한 경험없이 받기만 2년이 넘은 저라서 그것의 어려움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어려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사면(가석방)에 제외된 저희들을 둔 주변분들 마음이 오죽 하셨을까 싶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제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송구스러우면서 고마움이 클 수 밖에요. 작년 엠네스티에서 보낸 걸 속좁게 되돌린 것처럼 올해도 그럴까 생각하셨겠지만, 다행히 그냥 넣어 주더군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그런가요? 허허.

이번에 받은 많은 분들의 정성은 오로지 저희들 몸 건강하고 마음도 봄날처럼 확 풀고 생기발랄하게 생활하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의 모색과 모색을 거듭하면서 과거의 남은 것들을 버리고 또 취하고, 아우르고 하는 일들이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93. 4. 6

양 봉 만 드림

— 영양가는 없고 조미료만 잔뜩 친 사면

후원회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 봄, 새 기운이 완연합니다. 그 질기고 질긴 겨울이 끝이 없을 것만 같더니 거짓말처럼 새봄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양심수들을 위해서 여러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한겨레 신문에 양심후 후원회 인왕산 등반을 한 사진이 나와 있더군요.

이번 사면에서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재소 양심수 출소가 27%에 그쳐서 영양가는 없고 조미료만 잔뜩 친 사면이라는 혹평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사면에서 제외되어 징역에 남아 있지만 더욱더 분단된 조국의 역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영치금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후원해 주시는데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후원회에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그럼…

4월 1일

손 성 표 올림

— 허탈감 딛고 근본적 해결에 주체 세울 때

양심수 후원회원 여러분께

봄날. 따사로운 햇살에 모든 생물이 얼굴을 내밀듯 저도 힘찬 기지개(?)를 폅니다.

진작에 글 올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변명일지 몰라도 기만적인 3.6사면이 저를 거짓말쟁이, 믿을수 없는 놈으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민가협에 직접 찾아 뵈려 계획 했었거든요.

늦었지만, 보내주신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영치금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가슴 찢어지게 하는 장기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의 형기 3년을 징역이라고 영치금을 보내주시니 말입니다.

저야 뒤집어 놓은들 3년을 못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단기수들보다 한번이라도 더 장기수 선생님들의 차지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개혁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이 저를 비참하게 허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찌기 그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더욱 황당하게 합니다.

노동자들은 집이 없어 빌집(?)에서 그나마 월세로 집장만의 꿈을 버리지 않고 밤잠 설치며 장시간 노동하며 살고 있는데, 지도층이란 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었고 부의 불평등구조가 극날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건 재산을(부정한) 환수하는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의 불평등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재산공개가 집권당내의 세력관계의 재편을 위한 정치쇼로 이용된다니 답답해 하지 않을 이 누가 있습니까?

YS의 한계속에서 개혁의지의 부족으로 제도개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말썽 많은 몇몇의 목을 치며 시급히 파문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그렇지만 재산공개 파문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새 시대 개혁의 여건을 다져줄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 작업의 중요성을, 즉 공직자 윤리법의 전향적 개정과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허탈감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급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주체가 되어 대안을 제시하고 힘있게 다져졌던 흙을 들썩이고 나오는 생물처럼 다그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닌 온 민중의 몸이기에 더욱더 건강하셔야 합니다.

P.S 늦게 글 올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1993. 4. 6

불의날

정 승 영 올림

이상하지도, 속이 편하지도 않은 유치원 교사

모성룡 (후원회원)

군인들을 잔뜩 태운 버스가 포플러나무 가득한 시골길을 흙먼지 뒤로하며 부릉 부르릉 요란스레 달리다 정류장에 멈춰서자 보퉁이를 가슴에 안은 할머니 한분이 올라타더니 이내 내려오며 한마디 하셨다.
"웬 버스에 사람이 하나도 업다냐. 원 참"

가끔은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아이를 입학시키고 찾아온 학부형이 미술원 문을 열며 나를 보고 묻는 첫마디가 "선생님 안계셔요?" 인 것이다. 바로 내가 선생님인데 말이다. 하긴 유치원이란 곳에 남자가 있으니 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할머니가 군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며칠전에 부활절이라 매년 그러하듯이 부활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집에 가는 길에 예쁘게 포장한 계란을 하나씩 아이들 손에 들려주자 3년째 우리 원에 다니고 있는 영재가 물었다. "선생님 왜 예수는 자꾸 죽어요?"
이런 아이들과 어울려 하루를 보내는 나를 어떤이는 이상하게 보고 어떤 이는 속 편하겠다고 한다. 허나 나는 결코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 일이 그다지 속편한 직업도 아니란걸 알려주고 싶다.
이젠 가사일에서도 남녀 구분없이 짬나는 이가 빨래, 청소, 설거지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추세인 것처럼 여성들이 주로 담당했던 유아교육을 남자인 내가 한자리 끼어든 것이니 이상할 것 없고 생각외로(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아시겠지만)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는 속 뒤집어 지는 일이 많으니 속이 편할 것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교육이 엉망이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유아교육계도 마찬가지여서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어서 어찌 보면 어깨가 무겁고 가슴 답답한 직업일 수 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우리 고유의 것을 습득해보는 날로 정해 한복을 입고 등원하며 사물놀이, 탈춤도 해보고 시조와 속담도 배우며 민요를 불러제끼고, 전래동화에 귀기울이며 눈을 빛내는 아이들이 가득찬 유치원, 이런 유치원을 운영해보고 싶은 것이 나의 작은 꿈이다.
언어, 수·과학, 인지발달, 사회 등 각 영역별로 서구적인 교육방법으로 키워지고 교육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우리것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것들에 낯설지 않게 하고 나아가 즐겨하는 놀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아닐까?

벌써 이 일을 시작한지도 햇수로 6년째, 원장님이신 어머님의 권유로 멋모르고 뛰어들었을 때와는 달리 이젠 제법 아이들 맘도 읽을 줄 알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어느정도 짚을 수 있게 되었다.

허나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 투성이다. 아이들과 지내면 지낼수록 더욱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는 기술적 측면도 있음을 알게 된다.

자모들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교사인 나에게 꼭 필요한 말, 쉬지말고, 서두르지 말며, 비교하지 말것.

한바탕 놀아봐야 겠다.

쓸것은 다 썼지만 약속한 지면에 모자랄 것 같아 재미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보탬으로 때워볼까 한다.

지난 3월 말. 아이들을 데리고 역삼동에 있는 어린이 궁전에 견학겸 놀러를 갔다. 두어시간 재미나게 놀고 점심도 까먹고 이젠 돌아와야 할 시간. 차에서 내리는 대로 귀가를 시켜야 해서 종착점을 미술원으로 잡고 보니 미술원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먼저 타야겠기에 "집에 걸어가는 사람부터 타거라"하니 몇몇이 차에 오르는데 집이 미술원 바로 앞인 현우가 타지 않고 있어서 "왜 안타고 있니?" 했더니 삐쭉거리며 한마디 한다." 여기선 집까지 너무 멀어요"

■ 좋은 책 소개

「백척간두에 서서」 - 황대권 옥중서신모음-

• 그의 약혼자가 한 뭉텅이 옥중서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넘겨 보았거니와 그 안에 담긴 종교적 확신이나 역사인식의 투철함과 원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없는 문화에의 사랑이 삶과 삶 이상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진실의 서두들은 그것이 감옥에서 쓰는 규격안의 단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아주 이로(理路)가 철철 살아있는 생명의 첩경을 보여주고 있다.… 고은 시인 머리말 중에서

•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도 없었던 사람,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위한 일을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들 보다도 더 많이 해내고 있는 사람 그가 황대권이다.… 이글은 과학과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그가 신앙을 통해서, 종교에 빠지지 않고 역사에로 귀의하게 된 특이한 그러나 선구적인 '신앙고백'이기도 하다.…이기우 신부님의 이사람을 보라에서

1985년 8월 이른바 "구미유학생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988년 20년으로 감형되어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인 황대권님의 옥중서신이 한권 책으로 나왔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즈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분단현실을 누구보다 인파해 오다가 자주통일의 민족적 염원의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려 한 일이 빌미되어 억울한 징역을 살면서 가다듬은 이상적 공동체 실현의 구상들이며 민중운동의 실천논리이다.

도서출판 사회평론에서 펴낸 신국판 352쪽, 값5,000원

민주 통일의 길에 나도 …,

권정선 (후원회원)

몇년 만에 산에 오른다는 기쁨으로 손꼽던 날이 느릿느릿 기어서 도착했다. 날씨가 흐리지 않을까 혹 비라도 내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바람이 조금 부는 것 말고는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씨였다.

집이 멀어서, 또 전영 언니한테 선생님과 회원님들이 '시간약속은 칼같이 지키시는 분들'이라는 얘길 듣고 서둘렀더니 약속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사직공원에 도착했다. 선생님 몇분과 후원회원들도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이라 인사를 나누면서 처음인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져 기뻤고 한편으론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산에 오르실 것이 걱정이었는데 산에 오르기 사작하면서 내 걱정은 깨진 쪽박이 됐다. 한참 헉헉 대고 산에 오르다 고개를 들면 저만치 앞서 오르고 계신 선생님들. 하얀 머리카락이 혹시 날개가 아닐까?

인왕산은 25년간 일반인의 손길 대신 군인들의 군화소리만 들어서인지 아니면 곳곳에 쳐있는 철조망 때문인지 산다운 따뜻함을 조금 잃은 듯 하지만 이제 막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듯 하다. 그걸 확인하려는지 사람들은 전철안처럼 북적댔고 우리는 아쉬움을 접어두고 중간휴식지에서 인왕산과 헤어져 내려와 연대로 향했다.

3.6석방 동지들과 함께 하는 노래 공연이 있기 때문이다.

연대 잔듸에 앉아 맛있게 점심을 먹고 피로를 풀기위해 서로 등을 두드려 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놀이도 했다.

특히 간단한 몇가지 동작이지만 탈춤도 배웠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몸안에서부터 흥이 났다. 언제 한번 정식으로 탈춤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5시.

노천극장으로 향하면서 민가협 어머니들. 장기수 선생님들을 뵈었다. 처음 뵙는데도 알던 사이마냥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오신듯 기쁘고 반가왔다.

근데 공연이 사작되고 난 깜짝 놀랬다.

그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하시던 손이 불끈 쥐어져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실때는 산을 허물듯이 힘차고 강해지는게 아닌가.

아, 이것이 정의의 힘이요 우리 어머니의 힘이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힘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면서 아직 옥에 계신 양심수 모두가 우

리 곁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바람과 비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지 모두 물려와 추웠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힘껏 걸고 서로 더 가까이 앉아 하나됨을 과시했는데 서로 위해주고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게다가 이날 공연은 내가 늘 마음속에서 흠모하던 문익환 목사님, 이수호 선생님, 수경언니 등 많은 분들을 직접 뵙는 기쁨까지 안겨 주었다.

이날 모인

장기수 선생님

3.6석방자 동지

민가협 어머니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아직도 조국의 창살에 갇혀계신 양심수 여러분

이분들 덕에 나는 지나온 이십 년 세월을 부끄럽게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돌아왔다.

이날 내린 비는 그대로 살아서 내가 지치고 목말라 할때 내 목을 축여줄 것이요, 이날의 찬바람은 내가 약해지고 주저 앉고 싶을때 그날의 기억을 살려 다시 일어나게 깨우쳐주는 채찍이 될 것이다.

선생님들, 후원회 언니들

— 민주 통일의 길에 나도 끼워도 !

◎ 편지를 보냅시다.

후원회원 여러분 !
새봄을 맞아, 감옥에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들께 따스한 봄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
여러분이 보내는 편지 한장은 포근한 봄바람이 되어 15척 담장안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 김의진 선생님

(대전3574) 1930. 7. 13일생(64세), 1969. 6. 10 구속, 무기형, 25년 복역 경북 영덕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 만경대 학원에서 공부한 후 북청 과수 고등진문학교에 진학, 졸업후 농업기술부 과수지도원으로 활동하다 해상 수송 안내원 업무에 종사했다. 69년 체포 당시에 중상을 입었는데 지금도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몸 여러 군데 총상 자국이 남아있다.

무기지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살고 있는데 73--76년경의 잔혹한 전향테러에도 굴함없이 의연하게 이겨내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고 있다.

■김창원 선생님

(전주 2063번) 1933. 10. 17일생(61세), 1969. 6. 12구속, 무기형, 25년복역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부모에게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쟁시기 석탄공업전문학교 졸업. 의용군에 입대해서 도부전선의 방어전투에 참가, 종전후 69년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도 복역중이다.

■김은환 선생님

(대전3604번) 1930. 7. 12생(64세), 1969. 9. 28구속, 무기형, 25년복역

경기도 양주군 빈농가에서 출생. 전쟁 때 하사관으로서 소대장, 중대장의 지위를 맡을 정도로 부대가 소모되는 격전을 치루었다. 제대후 김책공업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조선영화촬영소 전기기술부대에 근무함 69년 체포당시 추격부대 야전지휘부 밑에 비트를 파고 숨어있는 등 국군의 허를 이용하는 등의 대담무쌍함은 두구두고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체포된 후 가족 소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모 형체 일가붙이가 빨갱이가족이라는 이류로 학살당하거나 박해당하다 사망했으며 어린 조카들은 전쟁고아로 근근히 자라나 전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비참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주 소

대전교도소 : (305-25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
전주교도소 : (560-280) 전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 알려드립니다.

■ 3월 1일 / "일본의 전쟁범죄 진상규명과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3·1 국제연대집회"가 있었습니다(12시, 탑골공원)

■ 3월 4일 / 민가협 제8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후원회원 이득행, 홍전영, 손일순, 최진만, 김언경씨가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 3월 6일 / '3.6사면조치와 관련해 143명의 양심수가 석방되었습니다.
장기수중에서는 고성화, 권양섭, 김명수, 박문재, 이종화, 홍문거 선생님이 출소하셨습니다.
- 위싱턴 수도교회 HAE SEUNG CHONG씨에게서 엽서가 왔습니다.
- 산행기획팀 회의를 이정규씨 집에서 가졌습니다.
(송록희 간사, 이정규, 김언경, 나명주, 최진만, 이득행 님이 참가하였습니다)

■ 3월 8일 / 3.6사면조치에 의해 석방된 양심수들의 기자회견이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권양섭 선생님, 이수호 선생님, 유원호 선생님 등 30여명의 석방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출소자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출소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3월 9일 / 장기수 선생님 80명, 일반 양심수 17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 아산요양소에 계시게 된 이종환 선생님(세계 최장기 복역, 42년 복역)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이계현, 홍전형, 권낙기, 최현숙, 권오헌 회장)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 3월 10일 / 이인모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부산대 병원)
문익환 목사님, 전창일 회원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현대교회에서 보내주신 성금 300,000원을 전해드렸습니다.

■ 3월 11일 / '이인모 선생님 송환추진위원회' 준비위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가협, NCC, 천정연, 민변, 고난, 불교인권위, 민자통, 여연 등 여러분이 오셨고 김상근 목사님과 함께 추진위 계획안을 토의하고, 뜻을 모아냈습니다.
장명국씨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 3월 12일 / 'UN 세계 인권 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2시, 기독교회관 2층)

■ 3월 14일 / 구로동 '만남의 집'이 수유리로 이사했습니다.

■ 3월 15일 / 고성화 선생님(3.6석방)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3월 16일 / '3.6석방자 환영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가 있었습니다 (3시 동국대 중강당)

문익환 목사님과 이수호 선생님을 비롯한 3.6석방자 약 4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 3월 17일 / 이인모 선생님 북녘 고향 가시는 데 환송하러 부산대병원에 다녀왔습니다.

~3월 18일 민가협 안옥희, 임기란, 권오헌, 권낙기 선생님이 가셨고, 이종, 고성화, 윤희보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옥중 동지들과 부산민협, 부·경총련 등 수백 명이 단일기를 들고 환송해 드렸습니다.

이인모 선생님께 김상원님과 민가협, NCC등 여러 사회단체 개인들의 정성어린 선물을 드렸습니다. 민가협 이름으로 반지 남, 녀 각 1개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인모 : 자주 - 민가협

김순임 : 통일 - 민가협

■ 3월 23일 / 후원회 3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5차총회와 관련해 총준위 구성건과 이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3월 25일 / 지난 92년 9월, 이른바 '남부 지역당'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가 불법으로 빼앗아 갔던 민가협 자료와 후원회 자료 일체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8명이 직접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께 「말」지를 발송했습니다.

■ 3월 27일 / 유가협 일일주점에 다녀왔습니다.

"144명의 석방동지와 함께 하는 새기운의 노래, 하나로 행진!"

첫째날 공연이 있었습니다. (5시, 연세대 노천극장)

■ 3월 28일 / 3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10시, 인왕산)

후원회원 약 50명이 참석하셨고, 산행후 연세대 잔디밭에서 탈춤 등을 배우는 뒷풀이 시간을 가졌고, 모두다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 3월 31일 / 양심수 134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각 1만원씩)

양심수후원회 제 5차 총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17일 늦은 5시부터 3시간 반에 걸쳐 양심수후원회 제5차 총회가 서울 왕십리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후원회원과 축하손님 180여명이 함께한 이날 총회는 〈1부〉 '총회 및 기념식', 〈2부〉 '어깨 걸고 하나되는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조무하 부회장님의 사회로, 여는 말씀, 민중의례에 이어 김승훈 신부님(지도위원)의 모시는 말씀이 있었고, 찾아주신 손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지도위원)의 격려말씀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성원해 주신 모범회원께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요연구회 회원들(황경선, 조미정)의 축가, 집행부의 92년도 사업평가 및 재정보고가 있었고, 진관스님의 감사보고를 듣고 박수로 승인하였습니다. 새일꾼 뽑기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박현서 교수님의 총준안을 만장일치로 동의, 선임하였고, 새일꾼들 인사와 93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채택하였고, 마지막으로 총회 결의안을 신유호 회원의 낭독으로 채택하는 시간을 갖고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2부〉는 송록희 간사의 사회로, 후원회원 팀별 축가잔치, 민요연구회와 함께 민요 따라 배우기 시간을 가졌고, 민가협 어머님들과 여러 장기수 선생님들의 노래자랑, 임원들의 흥겨운 춤가락이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습니다.

여러가지 음식을 함께 나누는 넉넉한 한마당이었습니다.

특히 최진만 회원은 이날 맛난 회를 준비해 오셔서 여러 어른들과 회원님들께 대접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 이날 92년 특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만남의 집 3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 독지가 주명순님이 소개되었고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선생님의 헌신적인 성원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별 첨 ■

• 함께 하신 분들

이종 선생님을 비롯한 30여명의 장기수 선생님들, 민가협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머님들, 한겨레 신문사 송건호 회장님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 인사분들과 후원회 회원님들이 대거 참여해주셨습니다.

• 감사패 받으신 분들

① 구두닦이 님

기층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밝히지도 않으며,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서서 2년이 넘게 빠짐없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회원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름없이 말없이 열심히 실천하는 모든 분께 드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② **신광현님**

통혁당 사건으로 20여년의 옥고를 치루시고 심장혈관 수술을 받는 등 후원회에서 도움을 드려야 함에도, 오히려 빠짐없이 온 정성으로 성원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역시 말없이 실천하시는 분이시며, 이런 장기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③ **김효순님**

해직교사로 어려운 생활전선에 있으면서도 더 큰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큰 몫으로 성금을 빠짐없이 해주신 분입니다.

④ **전교조 강남·강동지회**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다 해직된 교사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넘어, 갇힌 양심수를 염려하는 정성이 대단하셨고, 특히 누구인지도 모르게 주소도 밝히지 않아 소식지도 보내지 못했는데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⑤ **재독 노르트라인 베스트할센 한인교회 토요기도회,**

⑥ **재독 양심수후원회**

먼 이국땅에서 조국의 분단을 염려하며,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저 그동안 열심히 성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빔투본, L·A 양심수 자녀돕기, 워싱톤 수도교회, 카나다 교회, 시카고의 신지혜님, 일본의 이철님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5차 총회 선임, 새일꾼들

회　　장 - 권오헌　　(유임)
부 회 장 - 조만조　　(〃, 전 민가협 공동의장)
부 회 장 - 윤정모　　(전 운영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자투위 위원장)
운영위원 - 김영옥　　(유임, 남민전사건으로 복역·출소, 민자통)
　〃　　- 이덕우　　(변호사, 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
　〃　　- 김지영　　(의사, 김지영 내과 원장)
　〃　　- 소수영　　(후원회원, 출소장기수들께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 열성적인 후원회원)
　〃　　- 이정규　　(후원회원, 분반모임기획팀 대표로 후원회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모범회원)
감　　사 - 진　관　　(스님, 전 전국연합 인군위원장)
　〃　　- 박창원　　(사업, 현대교회 선교위원)
사무국간사 - 송록희
편집실무　　- 홍전영 (학원 국어강사)
기획팀소집책 - 나명주 (회사원)

• 후원회 창립때부터 이제까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애써주신 조무하 부회장님은 다른 하시는 일 관계로 부회장일에서는 쉬기로 했으며, 임종인 변호사님은 일본에 유학을 가시게 되어 운영위원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회 결 의 문

자유, 정의 진보는 인류가 한결같이 투쟁하고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이다. 예속과 억압에서 해방하고 착취와 침탈에 저항해온 원천은 바로 그 가치와 존엄을 지켜내는 인간의 양심이다.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른 가치판단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류사회의 일반이지이고 인류공동체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척도이다. 바로 인간의 역사를 진보의 쪽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이다.

그런데 이 땅에 고통받는 양심이 있었다.

수십 년 볕들지 않는 곳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존엄해야 할 인간성이 짓밟히고 학대받아온 우리 이웃이 있었다.

외세와 분단, 박해와 압제에 반대하고, 일한 만큼의 공정한 몫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겨레가 있었다.

양심수후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편에 서서,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가두는 제도를 뜯어 고치며 속박없는 참세상을 이루고저, 가장 순수한 뜻으로 모여 이룬 모임이다.

분단과 냉전의 논리가 드세던 때에 150여명으로 첫발을 내디딘 우리는 이제 제5차 총회를 맞아 1,000여명의 덩치 큰 후원단체로, 시대의 절실한 부름을 받으며 오늘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양심수후원회 제5차 총회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 우리는 다시금 양심수 전원석방의 의지를 다지지 않을 수 없다.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는 한,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주장하는 현 정권의 개혁의지는 그야말로 기만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양심수후원회는 베풀고 도움을 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공동체안에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 함께 풀어내는 동반자임을 자부하며, 이제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을 바로잡는 바탕위에서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장기수를 비롯한 300여명의 양심수들을 가둬둔 채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국가보안법 등의 반민주악법이 철폐되고 모든 양심수들이 전원 석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분단의 아픔속에 오랜 세월의 옥고를 치루고 출소하신 장기수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3년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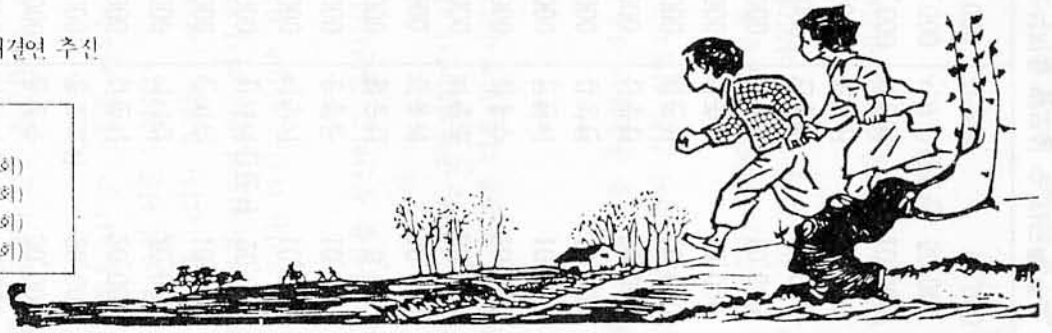
민 가 협 양 심 수 후 원 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정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치품 지원)
3. 시국사범 후원사업(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터전 마련사업
   (구로동 '만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소식

보내는이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이 :